

“평등 세상을 꿈꾸며” 大同 향한 예술 울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9일부터 동곡뮤지엄

학술세미나·릴레이 아트토크·깃발 만들기 체험 등 연계행사도

예술가 시선으로 바라본 동학농민혁명은 어떤가.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내세운 이 혁명은 관료들의 부패에 맞서고, 일본의 국권 침탈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한 백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1년간 이어진 두 차례 봉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한말 의병의 전적지, 광주 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보문고등학교는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와 함께 2년째 의병 추모제를 지내

오고 있다. 이로써 동학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전시로도 이어졌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은 9일부터 7월 21일까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을 받아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지역전시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이르는 역사적 순간들을 다양한 예술 형태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가 펼쳐지는 동곡뮤지엄 전시장 전경.



이성웅작 '공감'. 작품 앞으로는 평화 메시지를 담은 깃발 2천개를 꼽을 수 있는 체험공간이 마련된다.



임용현작 '죽산 백산'

리다.

구본주·김정현·김준권·신학철 등 민중미술 분야에서 인지도 있는 작가들을 비롯해 폭넓은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는 16명의 광주 작가 등 모두 33명이 전시에 참여한다.

개막을 앞둔 지난 2일 찾은 전시장은 작품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초입에서 만난 작품은 임용현 작가의 미디어아트 '죽산 백산(竹山 白山)'. 투명한 커튼에 투영된 화려한 영상 작업은 관객을 새로운 동학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듯했다.

죽장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세운 구본주 작가의 농민 조각상 그리고 그 옆에 낮을 든 팔 조각은 민중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기 충분했다.

폭포를 연상케 하는 나무가지 무더기 그리고 길다란 광목천 설치 작품은 정기현 작가의 '나무로부터-동경대전 베풀기'다.

당시 민중들의 결연한 얼굴을 표현한 위쪽의 나무조각, 그 아래 글귀들은 그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인본주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서현 작가가 설치 중인 민중의 꽃 민들레 홀씨와 주먹밥을 소재로 한 공예 설치 작품 '백산에서 이어지는 대동세상의 꿈'도 만날 수 있었다.

또 2층 전시 공간에는 박흥규 작가의 30여

점 관화 작품과 함께 동학 관련 유물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아외에 설치된 대형 에어작품은 이성웅 작가의 '공감'이다. 모든 이를 품고자 하는 히어로와 같은 형상으로 치유와 안정을 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그 앞 깃발대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 2천개를 꼽는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전시 연계 행사로 오는 10일 오후 1시 '새 문명을 여는 외침: 다시 개벽과 하늘모심'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마련됐으며, 문희영 예술공간집 대표와 함께 하는 릴레이 아트토크가 14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 이사장은 "130년의 시간을 거슬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의 열기와 정신을 예술가의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봄으로써, 대동세상을 향한 예술의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명진기자

공공미술 탐구, 기억의 도시

백종욱 미술생태연구소장 강연, 16일부터 총 6회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해외 여러 기념조형물의 사례, 국내 기념조형물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

오는 16일부터 6월22일까지 동구 미로센터 3층 미로극장에서 열리는 '공공미술 탐구, 기억의 도시' 강좌다.

백종욱(사진) 미술생태연구소장이 나서 ▲공공미술의 시대적 변화(5월16일)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5월23일)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들(5월30일) ▲한국 기념조형물의 역사(6월7일)



▲한국 국립 기념공간의 구조적 특성(6월13일) ▲광주 주요 기념조형물 답사(6월22일) 총 6번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연 일정 및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미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08-2132 /최명진기자

존재의 이유, 삶의 본질을 사유하다

한희원 초대전, 내달 28일까지 GIST 오통아트홀

'특유의 두터운 질감으로 그려낸 죽음과 삶에 대한 논제'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화가 한희원 화백이 다음달 28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통아트홀에서 초대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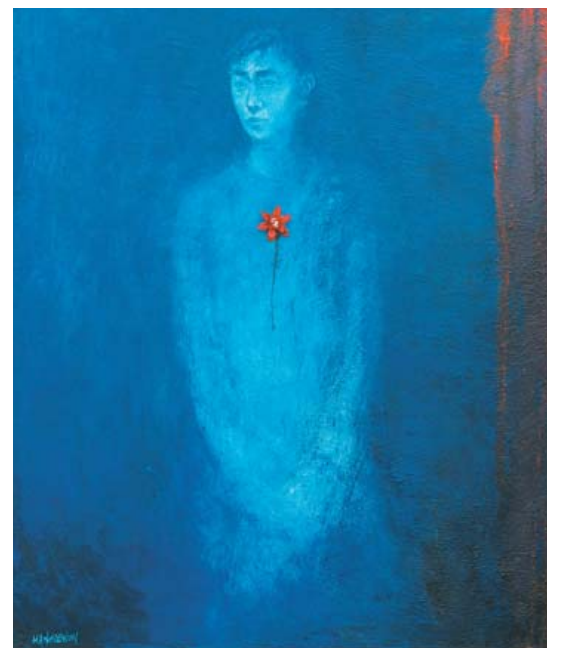
한 화백은 1970년대 민중미술로 화단에 등단해 46년간 자신만의 화풍을 확고히 구축해 온 광주 대표 작가다.

1990년대부터는 내면적 서정성과 인간 내면을 드러낸 작업들을 선보였으며, 2020년대부터는 강한 터치와 두꺼운 질감을 강조한 회화가 주를 이룬다.

미학적 사유의 화풍을 추구하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생, 존재로부터'를 주제로 한 20여점 작품을 선보인다.

'존재로부터', '생과 기억의 파편', '존재의 추상' 등 인간의 근원적 존재와 삶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최순임 오통아트홀 디렉터는 "우주와 자연, 인간이 갖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화두로 탄생과 죽음, 사랑과 기억, 안식과 상처를 담아낸 한 화백의 작품을 통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존재의 초상'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명품의 가치를 그대로 누리는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튼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TYPE **82A | 84B | 84C**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

로얄층 마감임박

1,466세대 대단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호수 지정
-------------	---------------	--------	------------	-------------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대표 전화 **1533-8316**